

## English Standard Version의 신약 번역에 대한 평가 -미완료 과거와 접속사, 그리고 단어의 번역을 중심으로-

정창욱\*

### 1. 들어가는 말

성경 번역자들은 언제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고안해 내기 위해 골몰한다. 두 마리 토끼는 바로 성경 원문에 충실한 ‘문자적인 번역’과 번역된 성경의 ‘문학적인 탁월성’ 혹은 ‘가독성’이다.<sup>1)</sup> 그리고 모든 성경 번역자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가 성공하기 어려운 일임을 깊이 인식한다. 그 결과 어느 한쪽에 강조점을 두고 한 쪽을 포기하여 한 마리 토끼를 잡는 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곤 한다. 이것은 일견 현실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언제나 최상의 방안은 아니다. 특별히 일반 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번역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의미를 가능한 한 그대로 밝혀냄과 동시에 그 말씀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ESV는 균형잡힌 성경 번역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성경은 ‘가능한 한 문자적으로’ 원문을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 성경들이 하는 대로 의미 대 의미(thought for thought) 번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대 단어(word for word) 번역을 추구한다. 하지만 동시에 문맥을 고려하여 의미가 잘 통하는 영어로 표현하는 방식에도 예민하다. 사실 이것은 RSV의 번역 원리와 맥을 같이 하며, 그 뿌리를 따지자면 KJV와 William Tyndale 신약성경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총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1) 포터(S. E. Porter)는 번역의 방법이 두 가지 곧 문자적 번역(literal translation)과 역동적 동등성 번역(dynamic equivalence translation)만 있다고 보는 성경 번역 학계의 경향을 소개하면서 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다 다양한 방법론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Assessing Translation Theory: Beyond Literal and Dynamic Equivalence”, S. E. Porter & M. J. Boda, eds., *Translating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9), 117-145.

ESV의 서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ESV는 ‘과거 500년에 걸친 영어 성경 번역의 고전적 주류’에 서 있다.<sup>2)</sup> RSV를 모본으로 하면서도 그것이 1971년에 번역되었기에 그동안 이루어진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고 그와 동시에 그동안의 영어의 변화도 반영하고자 한다.

물론, 일차적 주안점은 원문의 충실한 문자적 번역에 놓여진다. 그래서 단어의 순서도 가능한 한 원문 그대로 두고자 하며 포괄언어(inclusive language)의 사용도 원문이 허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바로 이 점이 NRSV와는 구별되는 ESV의 특징이다.<sup>3)</sup> 원문의 의미와 그 속의 함의를 가능하면 그대로 표현하려고 시도하기에 성경 본문의 원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ESV는 할 수 있는 한 속어적인 영어 표현을 사용하여 원문의 의미를 현대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한다. 이렇게 융합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ESV의 구절 구절 속에 역력하며, 대체로 보아서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쉬운 점들도 있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 이제 구체적인 경우들을 살펴보면서 제시된 원칙과 목표를 일관성 있게 지키고 이루어냈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 2. 헬라어 미완료 시제의 번역

헬라어 시제의 번역은 주요한 관심사항 중 하나다. 여러 가지 헬라어의 시제 중에서도 미완료 과거의 번역은 관심을 끈다. 왜냐하면 미완료 과거 시제는 영어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ESV는 헬라어 미완료 과거 시제를 제대로 번역하는가? 대표적인 몇 개의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 2.1. 갈라디아서 2:12

2) ESV는 그 서문(preface)의 첫 번째 쪽에서 이렇게 선언하며, 뒤 이어서 번역 철학, 원칙 그리고 문체를 설명한다. 이 서문은 대한성서공회에서 2013년에 출간한 『한영성경』의 첫 번째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3) NRSV는 포괄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바울서신에서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형제들과 자매들’로 바꾸어 버린다. 이러한 번역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자유주의신학자이며 여성신학의 지지자인 로버트 주잇(Robert Jewett)조차도 NRSV의 이러한 번역을 ‘부정직한 번역’이라고 비판한다. 현대 자유주의 관념을 1세기의 본문에 집어넣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의 인터뷰 내용은, *World Magazine*, vol. 13:6 (Feb. 13, 1998)에 실려 있다.

갈라디아서 2:12의 번역과 관련하여 ESV는 RSV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RSV와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ASV를 ESV와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For before that certain came from James, he ate with the Gentiles; but when they came, he drew back and separated himself, fearing them that were of the circumcision. (ASV)

For before certain men came from James, he ate with the Gentiles; but when they came he drew back and separated himself, fearing the circumcision party. (RSV)

For before certain men came from James, he was eating with the Gentiles; but when they came he drew back and separated himself, fearing the circumcision party. (ESV)

위에서 밑줄 친 세 동사들은 원문에서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 ASV는 이 동사들을 모두 단순 과거로 번역하였는데, RSV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원문에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을 왜 단순과거로 모두 번역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미완료 과거 동사의 용법 중 과거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본 듯하다.<sup>4)</sup> 그런데 문제는 단순과거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데 있다.<sup>5)</sup> ESV는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인식하여 미완료 과거 동사의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 RSV를 수정한다. 그런데 이 때 세 미완료 과거 동사 중 첫 번째 것만 미완료 과거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그것도 미완료 과거의 원초적 용법인 과거 진행형으로 번역한다. ‘was eating’. 하지만 나머지 두 개의 미완료 과거는 여전히 단순과거로 번역해 버리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성경 번역에서 헬라어 시제의 용법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며, 시제 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하는가?

RSV는 원문을 최대한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서 세 개의 미완료 과거를 단순 과거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보아 세 개 모두 단순 과거로 번역한다. 이것은

4) 어쩌면 영어에서 과거 진행형을 자주 쓰지 않는 것도 미완료 과거를 단순 과거로 많이 표현한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다.

5) 미완료 과거의 다양한 의미와 관련해서는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541-553을 참조하라. 그는 분명하게 단순과거적 미완료 (Aoristic Imperfect) 용법이 드물게 사용되며, 그나마도 이야기를 기술할 때 사용되는 *ἔλεγον*에 제한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그 속에 미완료 과거의 뉘앙스가 숨어 있음을 지적한다. *Ibid.*, 542를 보라.

일관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헬라어 미완료 과거의 함의를 거의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큰 아쉬움이다. 그 반면에, ESV의 경우는 첫 번째 동사를 헬라어 미완료의 의미를 살려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개의 미완료 과거를 단순과거로 그대로 놔 두면서 약간의 혼동이 생긴다. 왜냐하면 원문과는 달리 세 개의 미완료 과거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첫 번째 미완료 과거 동사도 과거진행형으로 번역하여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ESV는 이 구절에서 원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고자 하는 의도도 못 살리고 한 구절에서 사용된 동일한 시제의 동사를 통일성 있게 번역하려는 시도도 포기한 것이 되고 말았다.

사실, 이 부분에서 ESV의 번역은 헬라어 미완료 과거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문맥상 적절한 용법에 대한 충실한 고려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통적으로 ASV에서 RSV를 거쳐 내려오는 번역을 의미상으로 어색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존하고 보수하려고 시도한 모양새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RSV대로 하면 ‘먹는 것’과 ‘물러서는 것’과 ‘분리하는 것’ 사이의 연결이 어색하므로, 첫 번째 동사인 ‘먹는 것’을 과거 진행형으로 하여, 베드로가 이방인 형제들과 밥을 함께 먹고 있는 중에 그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것으로 표현해 낸 것이다. 여기서 ESV의 성격이 드러난다. ESV는 가능하면 원문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이 때 원문은 헬라어 원문이기도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잘 반영하는 RSV를 간접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어쩌면 이 둘은 ESV 입장에서는 칼로 두부 베듯이 잘라 낼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런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RSV가 원문을 가능하면 문자적으로 번역해 내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12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과거 시제와는 구별되는 미완료 과거 동사의 의미를 보다 명쾌하게 파악하고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ESV의 번역에 따르면 이 구절은 한 장면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다 자연스러운 설명은 이 구절에 그려진 장면을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sup>6)</sup> 다시 말해,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는 일정 기간 동안 이방인 형제들과 식탁 교제를 하곤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자 이방인 형제들과의 식탁 교제에서 물러서기 시작했고 얼마동안 그들과는 분리해서

6) 이 구절의 미완료 과거 시제의 의미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창욱, “헬라어 미완료 과거의 다양한 의미”, 『총신대 논총』 27호 특별호 (2007), 65-80을 보라.

지냈다.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계속해서 과거 진행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원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헬라어 동사 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하여 엄밀하게 번역해야 한다. RSV의 개정판이라 할 수 있는 NRSV의 이 구절의 번역은 흥미를 끄는데, 이 역본은 본문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역동성 있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for until certain people came from James, he used to eat with the Gentiles. But after they came, he drew back and kept himself separate for fear of the circumcision faction. (NRSV)

첫 번째 동사를 단순한 과거 진행형으로 하지 않고 헬라어 미완료 과거 용법 중 과거의 반복적/습관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여 발전적인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두 번째 세 번째 미완료 과거 동사의 해석과 번역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그런대로 잘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구절의 예는 헬라어 원문의 동사 시제를 가능하면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이 얼마나 복잡하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준다.<sup>7)</sup> 어쨌든, ESV의 주요 번역 원칙이 원문을 가능한 한 문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면 RSV에 충실하려는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맥을 고려하고 명백한 문법적 연구의 발전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sup>8)</sup>

7) 이 구절에 대한 KJV와 NKJV 번역의 차이점 비교는 흥미롭다. KJV는 세 개의 미완료 과거 동사를 단순 과거로 번역한다.

For before that certain came from James, he did eat with the Gentiles: but when they were come, he withdrew and separated himself, fearing them which were of the circumcision.

그런데 앞서 지적한 대로 미완료 과거에 대한 이러한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NKJV는 KJV에 수정을 가한다.

for before certain men came from James, he would eat with the Gentiles; but when they came, he withdrew and separated himself, fearing those who were of the circumcision.

NKJV도 많은 다른 영어 성경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미완료 과거를 수정하는데, ESV와는 달리 과거의 반복적/습관적 행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NRSV의 번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대로 원문의 의미를 잘 전달해 준다. 문제는 원문에는 세 개의 동사의 시제가 동일하나 번역에서는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NIV의 번역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Before certain men came from James, he used to eat with the Gentiles. But when they arrived, he began to draw back and separate himself from the Gentiles because he was afraid of those who belonged to the circumcision group.

이 번역은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미완료 과거 동사의 의미를 완벽하게 표현해 주며 NASB도 이와 동일하게 동사들을 번역한다.

## 2.2. 사도행전 6:7-10

사도행전 6:7-10까지 미완료 과거가 여섯 번 사용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번역은 ESV의 헬라이어 원문 충실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ESV와 RSV를 비교해 보면, 미완료 과거 시제의 번역에 있어 ESV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sup>7</sup> And the word of God increased; an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multiplied greatly in Jerusalem, and a great many of the priests were obedient to the faith.

<sup>8</sup> And Stephen, full of grace and power, did great wonders and signs among the people.

<sup>9</sup> Then some of those who belonged to the synagogue of the Freedmen (as it was called), and of the Cyrenians, and of the Alexandrians, and of those from Cilicia and Asia, arose and disputed with Stephen.

<sup>10</sup> But they could not withstand the wisdom and the Spirit with which he spoke. (RSV)

<sup>7</sup> And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multiplied greatly in Jerusalem, and a great many of the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sup>8</sup> And Stephen, full of grace and power, was doing great wonders and signs among the people.

<sup>9</sup> Then some of those who belonged to the synagogue of the Freedmen (as it was called), and of the Cyrenians, and of the Alexandrians, and of those from Cilicia and Asia, rose up and disputed with Stephen.

<sup>10</sup> But<sup>9)</sup> they could not withstand the wisdom and the Spirit with which he was speaking. (ESV)

ESV는 7절에서 할 수 있는 한 미완료 과거 시제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 과거로 번역한 RSV보다 진일보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8절과 10절에서도 ESV는 진행형으로 번역하여 RSV와는 달리 미완료 과거의 의미

---

8) 원문의 시제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에서 차라리 세 개의 동사 시제를 모두 과거 진행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영어 표현으로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수정을 하되 RSV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9) 이 접속사 ‘but’은 ‘καί’의 번역인데 이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접속사를 다루면서 따로 언급할 것이다.

를 충분히 전달해 주고 있다.

NIV와 NASB의 비교를 통하여서도 ESV의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sup>7</sup> So the word of God spread. The number of disciples in Jerusalem increased rapidly, and a large number of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sup>8</sup> Now Stephen, a man full of God's grace and power, did great wonders and miraculous signs among the people.

<sup>9</sup> Opposition arose, however, from members of the Synagogue of the Freedmen (as it was called)--Jews of Cyrene and Alexandria as well as the provinces of Cilicia and Asia. These men began to argue with Stephen,

<sup>10</sup> but they could not stand up against his wisdom or the Spirit by whom he spoke. (NIV)

<sup>7</sup> And the word of God kept on spreading; an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continued to increase greatly in Jerusalem, and a great many of the priests were becoming obedient to the faith.

<sup>8</sup> And Stephen, full of grace and power, was performing great wonders and signs among the people.

<sup>9</sup> But some men from what was called the Synagogue of the Freedmen, *including* both Cyrenians and Alexandrians, and some from Cilicia and Asia, rose up and argued with Stephen.

<sup>10</sup> And *yet* they were unable to cope with the wisdom and the Spirit with which he was speaking. (NASB)

위의 밑줄 친 여섯 개의 영어 동사가 보여주듯이 NIV는 이 여섯 개의 미완료 과거 동사 모두를 영어의 단순 과거로 표현한다. 그 중 6:7의 세 번째 미완료 과거는 '기동의 미완료 과거 용법'으로 본 것이며 10절의 처음 동사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sup>10)</sup> 하지만 나머지 네 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과거로 번역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NASB는 여섯 개 모두를 과거에 진행 중인 동작으로 표현한다. 그 반면에 ESV는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단순 과거를 쓰기도 하고 과거 진행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7절에서 세 개의 미완료 과거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다. NIV는 마지막 동사를 비록 '기동의 미완료 과거' 용법으로 표현

10) '기동의 미완료 과거 용법'은 영어로 'ingressive imperfect' 혹은 'Inchoative imperfect'로서 어떤 동작의 시작을 강조해 주기 위해 사용하는데, 미완료 과거이기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 되는 동작을 나타내 준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began ~ing로 표현할 수 있다.

하긴 하지만 나머지 두 개를 단순 과거로 번역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NASB는 마지막 동사조차도 진행형으로 번역하면서 나머지 두 개 역시 미완료 과거의 의미로 분명히 번역한다. 그 반면에 ESV는 첫 번째 동사를 분명하게 미완료 과거의 의미를 갖도록 번역하며, NIV와 같이 세 번째 동사를 ‘기동의 미완료 과거’ 용법으로 해석한다.

사실, 사도행전 6:7-10에서 NIV의 번역은 영어 문장만 놓고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고 완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원문의 동사 시제의 의미는 거의 전달해 주지 못한다. 반면에 NASB는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반영해 주고 있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매끄럽지 못하고 어색한 느낌을 준다. 이와같이 이 두 번역 성경 중간에 위치한 성경이 바로 ESV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6:7-10의 미완료 과거 시제의 번역은 보여준다.

### 2.3. 누가복음 22:63-64

누가복음 22:63-64의 번역 비교도 흥미롭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부분에서 ESV는 사도행전 6:7-10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완료 과거를 표현한다.<sup>11)</sup>

<sup>63</sup> Now<sup>12)</sup> the men who were holding Jesus in custody were mocking him as they beat him.

<sup>64</sup> They also blindfolded him and kept asking him, “Prophecy! Who is it that struck you?” (ESV)

밑줄 친 동사들은 원문에 미완료 과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RSV는 둘 다 단순 과거로 번역하나(mocked/beat) ESV는 미완료 과거 시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 낸다. 이것은 RSV에서 상당히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반면에 NIV는 이 부분에서도 헬라어 미완료 과거를 위해서 단순 과거를 사용하여 미완료 과거의 생생한 의미를 전혀 전달해 주지 못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63절에 began mocking을 사용하여 64절의 동작이 진행 중인 동작일 수도

11) 64절에서 접속사를 생략하는 다른 많은 성경들과는 달리 καί를 생략하지 않고 ‘also’로 번역하기도 한다. ESV가 ‘also’로 번역한 것은 아마도 RSV에서 기인한 듯하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RSV는 62절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집어넣은 반면에 ESV는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RSV의 번역을 NRSV도 따른다. 반면에 NIV를 비롯하여 NJB, NET, NLT 등은 과감하게 이 접속사를 생략해 버린다.

12) 여기에 사용된 접속사 ‘καί’를 NIV는 생략하나, ESV는 문맥을 따라 ‘now’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접속사를 포함시키려는 ESV의 경향을 잘 드러내 준다.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기는 한다.

<sup>63</sup> The men who were guarding Jesus began mocking and beating him.

<sup>64</sup> They blindfolded him and demanded, “Prophecy! Who hit you?”  
(NIV)

이와는 다르게 NASB는 미완료 과거를 과거진행형으로 표현한다.

<sup>63</sup> Now the men who were holding Jesus in custody were mocking Him and beating Him,

<sup>64</sup> and they blindfolded Him and were asking Him, saying, “Prophecy, who is the one who hit You?” (NASB)

이 부분에서 ESV는 원문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어색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RSV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sup>13)</sup>

### 3. 접속사 ‘καί’의 번역

ESV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면서도 원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문장을 매끄럽게 한다는 사실은 접속사의 번역, 특별히 흔히 쓰이는 ‘그리고’, ‘그러나’ 혹은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접속사의 번역에서 잘 나타난다. ESV는 RSV를 따라 이 접속사들을 생략하지 않고 대부분 번역하면서 가능하면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시도한다. 그와 동시에 문맥의 흐름에 맞게 다양하게 번역하기도 하고 문맥상 너무 어색한 경우는 생략도 한다. 이제 접속사 ‘καί’를 ESV가 어떻게 번역하는지 몇가지 예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3.1. 요한복음 1장

13) 사도행전 7:54-58 중 54절과 58절의 미완료 과거의 번역과 관련하여 ESV는 아쉬움을 드러낸다. 54절에서 미완료 과거는 ‘began gnashing’으로 보는 것이 더 정밀하며, 특별히 58절의 경우에는 ‘began stoning’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NIV조차도 58절의 미완료 과거를 ‘began to stone’으로 할 정도로 이것은 문맥상 분명하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ESV는 둘 다 단순과거로 번역해 버린다. 이것은 누가복음 22:63-64의 번역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것이어서 의아함을 갖게 한다.

요한복음 1:5의 경우에 ‘καί’가 두 번 등장하며, NIV는 첫 번째 ‘καί’를 생략해 버리고 두 번째 것은 ‘but’으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본문의 흐름을 분명하게 해 준다. 하지만 ESV는 첫 번째 접속사를 생략한 채 두 번째 것을 위해 ‘and’를 채택한다.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ESV)

여기서 ESV는 RSV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본문의 흐름이 어그러지지 않는 한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RSV를 따라 첫 번째 접속사를 생략해 버린다. 물론 두 번째 ‘καί’를 ‘and’로 번역한 것은 RSV와 함께 번역 원칙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접속사가 역접의 의미를 전달하기도 해서 ‘그러나’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까닭에 문맥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속사의 주된 용법을 따른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sup>14)</sup> RSV와 함께 ESV는 요한복음 1:5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치사를 생략하여 문맥에도 신경을 쓴다.

이와 같이 원문의 헬라어 전치사의 원 의미에 충실하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엄매여서 영어의 표현이나 의미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한다. 요한복음 1:10의 예는 이러한 ESV의 경향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 문장에서 접속사 ‘καί’ 두 개가 세 문장을 하나로 묶어주는데 ESV는 처음 것은 ‘and’로 번역 하나 두 번째 것은 ‘yet’으로 번역하여 문장의 흐름을 분명하게 표현해 준다.

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yet the world did not know him. (ESV)

이 두 번째 접속사를 KJV를 비롯한 많은 성경이 ‘and’로 번역한다는 사실이 주목을 끄는데, 여기서도 ESV는 RSV의 번역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ESV는 RSV를 따라서 충실히 원문을 번역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맥에 맞게 접속사의 번역을 적절하게 하려고 시도한다. ESV가 문맥에도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가 요한복음 1:16에서도 발견된다.

And from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upon grace.

14) BDAG에 따르면 이 접속사는 분명하게 역접의 뜻을 나타내어,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전달하기까지 한다.

사본학적인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네슬-알란트 판은 이 문장의 맨 앞에 있는 접속사를 ‘ὅτι’로 결정해 놓았다. 이 접속사의 의미는 이 문장에서 아주 모호하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이 접속사의 번역을 생략해 버린다.<sup>15)</sup> 다수 사본(Majority Text)에 의존하는 KJV같은 성경은 원문을 ‘καί’로 보기에 당연히 ‘and’로 번역하였고, 원문의 문자적 번역에 치중하는 NASB는 ‘ὅτι’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for’를 사용한다. 또한 ASV도 ‘for’를 사용하며, 독일어 성경 중에도 ELB, ELO 등은 ‘for’에 해당하는 ‘denn’으로 번역한다. 하지만 ESV는 RSV를 따라 ‘and’로 번역한다. 문맥상 ‘for’는 어색하고 그렇다고 접속사를 제외시킬 수는 없어서 ‘and’로 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은 RSV의 새로운 번역인 NRSV가 문맥을 위해 이 접속사를 생략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 예는 ESV가 원문의 의미를 가능하면 살리려 하고 문맥도 고려하면서, 무엇보다도 충실히 RSV를 따라 전치사의 번역을 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3.2. 사도행전 6:10

사도행전 6:10의 접속사 ‘καί’에 대한 ESV의 번역은 주목을 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과 ESV를 함께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καὶ οὐκ ἴσχυον ἀντιστῆναι τῇ σοφίᾳ καὶ τῷ πνεύματι ᾧ ἐλάλει.

But they could not withstand the wisdom and the Spirit with which he was speaking. (ESV)

문장의 맨 처음에 사용된 연결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로 우선적으로 ‘그리고’를 의미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ESV는 요한복음에서 이 접속사를 가능하면 중심 의미인 ‘그리고’로 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ESV는 ‘and’와는 아주 다른 ‘but’을 사용한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 사실 요한복음 1:5나 이 구절이나 문맥상 역접의 ‘그러나’가 더 적합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런데 ESV는 요한복음 1:5에서는 ‘and’로 하고 이곳에서만 ‘but’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RSV의 번역을 그대로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좀 더 문맥상 역접의 접속사를 요구하는 요한복음 1:5에서도 과감하게 ‘but’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5) NIV, NRSV는 물론 독일어 성경 Zuercher Bibel도 생략하며, 한글 성경도 이와 같이 생략해 버린다.

### 3.3. 누가복음 1:38 하반절

누가복음 1:38 하반절에서 ESV는 “and the angel departed from her”이라고 번역한다. 이 때에 접속사 ‘and’는 헬라어 접속사 ‘καί’의 번역인데, 문맥상 ‘then’이 더 자연스럽다. 사실 NIV와 NRSV는 이 접속사를 ‘then’으로 번역하며 그 외에도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접속사를 이렇게 번역한다. 하지만 ESV는 원문에 충실하려고 시도하며, 특별히 등위 접속사를 ‘그리고’로 번역해 버린다. 위의 사도행전 6:10에서 과감하게 ‘καί’를 ‘그러나’로 번역했듯이 이 부분에서도 ‘then’으로 번역할 필요성이 있다.<sup>16)</sup>

정리해 보자면, ESV는 접속사를 번역함에 있어 가능한 한 그것을 생략하지 않고 포함시키려 하며, 최대한 접속사의 일차적 의미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 때에 RSV를 충실히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RSV를 따라 전치사를 종종 생략하기도 하며, 문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차적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 때 아쉬운 점은 때로는 RSV를 너무 의식하며 따라가서 문맥상 필요한 경우에도 그대로 RSV의 번역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 4. 단어의 번역

### 4.1. 누가복음 11:8

누가복음 11:8의 번역은 관심을 끄는데, 특별히 ‘집요함’(persistence)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λέγω ὑμῖν, εἰ καὶ οὐ δώσει αὐτῷ ἀναστὰς διὰ τὸ εἶναι φίλον αὐτοῦ, διὰ γε τὴν ἀναίδειαν αὐτοῦ ἐγερθεὶς δώσει αὐτῷ ὅσων χρήζει.

I tell you, though he will not get up and give him anything because he is his friend, yet because of his impudence he will rise and give him whatever he needs. (ESV)

이 구절에서 밑줄 친 단어 ἀναίδεια를 ESV는 ‘impudence’로 번역한다. 우선 이 단어는 오래된 영어 역본에서는 모두 ‘importunity’로 번역되어서 ‘과도하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ASV, KJV, GNV, ERV). 그 반면에

16) BDAG에 따르면, 이 접속사는 ‘and then’의 의미를 전달해 주기도 한다.

근래에 번역된 대부분의 성경은 이 단어를 ‘persistence’로 번역하는데 특별히 KJV의 새로운 번역인 NKJV 역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흥미롭다. 의미 번역을 추구하는 MIT(The Idiomatic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는 ‘persistence’에다 ‘의연한, 흔들림이 없는’을 의미하는 형용사 ‘undaunted’까지 덧붙여서 이 단어의 의미를 더 확고하게 단정적으로 정해버린다. 이렇게 되어 이 단어의 의미는 ‘굽히지 않는 집요함’으로 확정되어 버린다. NET도 이와 비슷하게 전치사 구를 ‘the first man’s sheer persistence’(첫번째 사람의 철저한 집요함)으로 해석하여 떡을 요청하는 사람의 순전한 집요함으로 번역해 버린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NIV 등 몇 개의 역본은 ‘boldness’로 번역한다. 이렇게 옛 역본들과 많은 현대 역본들은 일맥상통하여 떡을 달라고 문밖에서 간청하는 자의 ‘지속적 요청’이나 ‘담대함’에 강조점을 두는 표현을 선택한다.

그런데 1971년에 번역된 RSV는 ASV를 따라 비슷한 시기의 다른 역본들과는 비슷하나 약간 다른 의미의 단어인 ‘importunity’로 번역한다. 이것을 ESV는 ‘impudence’로 바꾸어 버리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몰염치’, ‘무례함’, ‘부끄러움 없음’ 등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친구의 ‘부끄러움 없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집에서 잠자리에 들어서 그 요청을 들어주어야 하는 친구의 ‘부끄러움 없음’일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번역은 최근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해 보인다. ‘impudence’라는 명사의 사용은 떡을 달라는 친구의 ‘담대함’이나 ‘부끄러움 없음’ 혹은 ‘굽힐줄 모르는 집요함’을 표현해 줄 수도 있으나, 집안에 있는 친구의 ‘부끄러움 없음’으로 볼 수도 있다.<sup>17)</sup> 후자로 볼 경우에는 집안에 있는 친구가 비록 떡 달라는 사람의 친구인 까닭에 일어나 떡을 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일어나 그 요청을 들어 준다는 의미를 전달해 준다. 그 당시 문화적, 사회적 관습이나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이런 해석은 가능성이 있다.<sup>18)</sup> 물론 이 단어의 사용이 이 해석을 직접적으로 지지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떻게 번역할 때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17) 이와 관련하여, Snodgrass는 이 단어가 어떤 경우든 ‘집요함’(persistence)이라는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렇게 번역한 역본들은 너무 단정적으로 이 비유의 의미를 결정해 버린다고 할 수 있다. Klyne R. Snodgrass, *Stories with Intent: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Parable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2008), 437-449.

18) 이 비유와 관련하여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풍습이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K. Bailey, *Poet and Peasant: A Literary Cultural Approach to the Parables in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76), 125-133을 보라.

로 손들어 줄 수 없으며, 최대한 본문의 의미를 전달하여야 하기에 누가복음 11:8의 ESV의 번역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4.2. 누가복음 16:8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ESV는 8절에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가 그 청지기의 ‘약삭빠름’(shrewdness) 때문이라고 번역한다.

καὶ ἐπήνεσεν ὁ κύριος τὸν οἰκονόμον τῆς ἀδικίας ὅτι φρονίμως ἐποίησεν· ὅτι οἱ υἱοὶ τοῦ αἰῶνος τούτου φρονιμώτεροι ὑπὲρ τοὺς υἱοὺς τοῦ φωτὸς εἰς τὴν γενεὰν τὴν ἑαυτῶν εἰσιν.

The master commended the dishonest manager for his shrewdness. For the sons of this world are more shrewd in dealing with their own generation than the sons of light. (ESV)

밑줄 친 부분의 번역은 RSV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ASV에서는 ‘because he had done wisely’로 되어 있던 것을 RSV에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다. 이 단어의 채택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문맥에서 그 단어의 뜻은 ‘지혜롭게’보다는 오히려 ‘약삭빠르게’이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본받아야 할 모본이 아님을 드러내 준다.<sup>19)</sup> 기껏해야 그 의미는 청지기가 그렇게 약아 빠지게 행동하고 그와 같이 이 시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일들을 다룰 때는 영리하게 잘 계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왜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여 ‘because he acted shrewdly’로 번역하지 않고 전치사구로 번역했는지 의아하다. 아마도 RSV를 따라간 듯한데 원문을 가능한 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은 이유절로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 4.3. 요한복음 1:18

---

19)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Dennis J. Ireland, *Stewardship and The Kingdom of God: A Historical, Exegetical Study of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in Luke 16:1-13* (Leiden; New York; Koeln: E. J. Brill, 1992)을 보라.

요한복음 1:18의 경우에는 흥미로운 문법적 신학적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데, ESV는 이렇게 번역한다.

Θεὸν οὐδεὶς ἑώρακεν πώποτε· μονογενοῦς θεός ὁ ὢν εἰς τὸν κόλπον τοῦ πατρὸς ἐκεῖνος ἐξηγήσατο.

No one has ever seen God; the only God, who is at the Father's side, he has made him known. (ESV)

이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주목을 끈다. RSV는 이 부분을 ‘the only Son’으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헬라어 원문이 μονογενοῦς θεός임을 고려해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원어 표현에 ‘God’에 해당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이유를 추론해 보면, 아마도 RSV는 이 부분에서 다른 독법을 따라서 원문이 ὁ μονογενοῦς υἱός (the only Son)이라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sup>20)</sup> NRSV는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문맥을 고려하여 ‘God the only Son’으로 번역한다. 직역보다는 의역에 주안점을 두는 NIV는 이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God, the One and Only’로 표현한다.<sup>21)</sup> 이것을 ESV는 ‘the only God’으로 번역한다. 이것은 only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신학적 함의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원문에 아주 근접한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영어 표현도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이렇게 ESV는 RSV를 곳곳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한다.

#### 4.4. 로마서 14:17

ESV가 표방한 원칙을 단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 제대로 지켜내는지 의문을

20) 이 부분에 대한 파피루스의 발견으로 사본학적 외적 증거는 μονογενοῦς θεός를 지지해 주며, 내적 증거도 이 독법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사본 필사자들이 θεός를 υἱός로 바꿀 이유는 충분히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했을 가능성은 아주 낮기 때문이다. 사본학적 증거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Bruce M.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164-165를 보라.

21) 이 같은 번역은 μονογενοῦς와 θεός를 동격으로 보고 그 사이에 중간 쉼표를 찍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θεός 뒤에도 중간 쉼표를 찍어서 뒤의 내용도 동격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L.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5), 100-101을 보라.

22) μονογενοῦς를 ‘the only begotten’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몇 개 있다. ASV, KJV, NKJV, NASB. 하지만, 최근의 많은 주석가들은 이 단어가 단순히 ‘only’ 혹은 ‘unique’를 의미한다고 본다. 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1), 128; Morris, *John*, 93.

갖게 하는 예가 로마서 14:17에서 발견된다.

롬 14:17의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οὐ γὰρ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βρώσις καὶ πόσις ἀλλὰ δικαιοσύνη καὶ εἰρήνη καὶ χαρὰ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이 문장을 ESV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ESV)

이 번역은 원문을 가능하면 문자 그대로 번역하려고 시도하는 ESV의 번역 원칙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특별히 ‘a matter of’라는 표현을 집어넣을 강력한 이유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다른 영어 번역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ESV가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있는 RSV의 번역은 이렇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food and drink but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RSV)

흥미롭게도 NRSV는 RSV의 번역을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따라간다. 많은 경우에 NRSV가 RSV에 수정을 가하고 ESV가 그대로 수용하려는 경향과는 다른 현상이 이곳에서 발견된다. 그렇다면 과연 왜 ESV는 이 구절에서 이런 방식을 채택한 것일까? 혹시 직역을 하게 되면 영어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의역을 주로 하는 NIV의 번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NIV)

이 번역은 놀랍게도 ESV와 완전히 일치한다. 그런데 가능하면 풀어서 설명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NRSV가 RSV의 번역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ESV는 RSV를 따르지 않고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으로 번역한 것일까?<sup>23)</sup>

23)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KJV와 NKJV의 번역을 비교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두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한다.



아마도 ESV의 번역자들은 문맥을 고려해 볼 때 βρώσις καὶ πόσις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 헬라어 단어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일 수도 있고 ‘음식과 음료’일 수도 있다. 그런데 문맥상 ‘먹고 마시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sup>24)</sup>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구절 앞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며 무엇이든 먹을 수 있지만, 형제를 위하여 음식을 삼갈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런데 이렇게 원문대로 번역을 해 놓으면 너무 많은 설명이 요청된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설명은 그런대로 의미가 분명한 반면에, 그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는 불분명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마도 ESV의 번역자들이 이 부분에 ‘a matter of’를 집어넣은 이유일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ESV는 가능한 한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시도하는 동시에 의미가 애매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문을 약간 수정하기도 한다. 이것이 ESV의 특성 중 하나라는 사실을 로마서 14:17은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왜 유독 이 부분에서 ESV가 RSV를 따르지 않고 원문과는 다른 번역을 채택하는지 그 이유가 애매한 것은 사실이다.

## 5. 결론

이상에서 보았듯이 ESV는 원문의 의미를 ‘가능하면’ 최대한 살려서 문자적으로 번역하고자 하는 동시에 문맥도 고려하여 영어 표현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매끄럽게 처리하려고 시도한다. 또한 RSV에 의존하고 그것을 원본으로 삼아 따르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정하기도 하여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SV는 성경의 원 의미 파악에 일차적 관심

---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meat and drink; but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Ghost. (KJV)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eating and drinking, but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NKJV)

KJV는 ‘eating and drinking’을 ‘meat and drink’로 표현한다. 곧 ‘먹고 마시는 것’을 ‘고기와 음료’로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뒤의 ‘의와 평강과 기쁨’과 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먹고 마시는 것과 의와 평강과 기쁨은 뭔가 대조를 이루지 못한다고 본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을 NKJV는 ‘eating and drinking’으로 번역해 버린다. 그렇게 해도 의미가 통하며, 사실 이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 모리스(Morris)는 이 두 단어가 ‘먹고 마시는 행동’을 지칭한다고 설명한다. Leon Morris,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88), 488.

이 있는 독자들에게 크게 유익하며, 아울러 번역한 내용의 문맥과 흐름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도 유익을 준다. ‘원문의 문자적 의미 파악’에 집중하면서도 ‘번역된 말의 의미 전달’에도 관심을 기울여,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기 때문이다.

물론, 위에서 살펴본 예들 중 몇 가지 경우에서처럼, 최근의 학문적 발전의 결과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RSV를 따라가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별히 헬라어 미완료 과거의 번역에서 이런 점이 드러나서 미완료 과거 시제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접속사의 번역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문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너무 RSV를 따라가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ESV는 전반적으로 번역원칙을 충실히 지킨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NIV나 NRSV보다 원문의 문자적 의미에 가깝고, NASB보다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영어적 측면과 학문적 측면의 발전을 반영하여 전신인 RSV보다 전반적으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ESV는 현 상태로도 그 가치를 충분히 지녔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여기서 언급한 아쉬운 점들을 보완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번역이 되리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 <주요어>(Keywords)

ESV 영어 성경, 신약성경 번역, 미완료 과거, 접속사, 갈라디아서 2:12.

ESV,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imperfect verb, conjunction, Galatians 2:12.

(투고 일자: 2013년 3월 18일, 심사 일자: 2013년 3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3년 4월 3일)

<참고문헌>(References)

- 메츠거, 브루스 M.,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 원문연구소, 2005.
- 정창욱, “헬라어 미완료 과거의 다양한 의미”, 『총신대 논총』 27호 특별호 (2007), 65-80
- Bailey, K., *Poet and Peasant: A Literary Cultural Approach to the Parables in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76.
- Carson, D. A.,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1.
- Ireland, Dennis J., *Stewardship and The Kingdom of God: A Historical, Exegetical Study of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in Luke 16:1-13*, Leiden; New York; Koeln: E. J. Brill, 1992.
- Morris, L.,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5.
- Morris, L.,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88.
- Porter, S. E., “Assessing Translation Theory: Beyond Literal and Dynamic Equivalence”, S. E. Porter & M. J. Boda, eds., *Translating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9, 117-145.
- Snodgrass, Klyne R., *Stories with Intent: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Parable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2008.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Abstract>

## **An Evaluation of the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of the English Standard Version**

Prof. Chang Wook Jung  
(Chongshin University)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is to be placed between the NASB which aims to be a literal translation, and the NIV which aims to be a literary translation. The preface of the ESV claims that “the ESV is an ‘essentially literal’ translation that seeks as far as possible to capture the precise wording of the original text.” At the same time, the version takes readability into account. The emphasis is laid on literal translation, but the literary style of the English language is not ignored. It is generally said that such goals of the ESV’s goal is accomplished.

A close investigation demonstrates, however, that the ESV fails to maintain its consistency in some cases, or to mark any advancement over the RSV, which it follows too rigidly. This study examines some instances in which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ESV stand out. First, the study deals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imperfect tense, which represents one of the most complicated tenses when translating Greek into English. Whereas the ESV is better than the RSV or the NIV in translating the imperfect, it fails to convey the precise meaning of the imperfect tense in some passages.

Second, the translation of the conjunction ‘καί’ reveals that the ESV has faithfully adhered to the RSV. While appropriately interpreting the conjunction as an adversative in some cases, the ESV, nevertheless, is hesitant to do so in other passages as required. The third part reviews the translation of some Greek nouns, one area where the ESV surpasses the RSV. This section also investigates an instance in Romans 14:17 where the ESV does not subscribe to its own translation principles. In sum, the ESV represents a reliable translation, which faithfully reflects the Greek text, in spite of some debatable instances explored herein.